

## 제 8 부 유파·교단과 인물 (第 8 部 流派・教団と人物)

제 8 부에서는 신도유파(神道流派)·학파, 교단과 신도에 관계되는 주요한 인물을 설명한다. 신도는 자연발생적인 종교이긴 하지만, 국가적인 제도와 관계를 가지며, 민속종교와도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전개해 간다. 게다가 카마쿠라(鎌倉)시대이후는, 학파·유파도 점차 형성되어갔다. 더욱이 학파, 유파, 신도설 등의 개념은, 엄밀히 구별된 것이 아니었다. 주로 신도가(神道家), 사가(社家)\*, 국학자, 때로는 승려 등에 의해서 옮겨지고 계승되어진 가르침을 일반적으로 이와같이 부르고 있었다. 이것에 덧붙여, 근대가 되면 교과신도(教派神道)\*나 신도계신종교(神道系新宗教)\*와 같이 교단화된 신도가 출현한다. 통상 교단신도에는 명확한 창시자, 교조 등이 존재한다.

유파나 학파의 출현에는 불교의 자극이 컸다고 여겨진다. 불교측이 각파의 교리와 토착의 신기(神祇)신앙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가지 설을 세운 것이, 신도의 교리화를 촉진하는 큰 요인이 되었다. 가장 빠른 학파로서, 통상 이세신도(伊勢神道)\*를 들 수 있는데, 이것도 이것 이전에 형성되어진 불교측의 양부신도설(兩部神道說)을 전제로 나왔다고 한다. 학파·유파의 형성은 중세부터 근세에 걸쳐서 눈에 띄는 현상이지만, 전체로 보면 점점 불교에서의 자립이 현저해지는 경향이 있다. 또 근세에 있어서는 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된 것이 특징이다. 또 이것들의 보급의 정도에 대해서는 오기마치신도(正親町神道)\*, 슈하치신도(十八神道)\* 등과 같이,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관지(関知)한 것이 있는가 하면, 에도(江戸)시대후기의 복고신도(復古神道)\*와 같이, 널리 받아들여져 사상운동부터 실천적운동까지 전개된 것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중세보다도 근대 쪽이 개개의 유파·학파가 유포되는 정도가 강한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각각의 가르침과 학설의 내용에도 관계가 있지만, 사회전체에 종교에 관한 정보가 유포되는 구조가 변화해 가는 것에도 크게 의존한다.

교단신도의 출현도 사회전체 변화와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할 점이 많다. 근세의 국학운동이나 요시다신도(吉田神道)\*등은 교단신도(教団神道)로의 과정적 형성을 준비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대국가·근대사회의 출현은 신도의 다양화를 촉진시켰다. 이 시기에는 조직적 포교를 한 신도가 출현한 것이 특필된다. 이것의 대부분은 교조라고 불리우는 창시자, 그 외 조직자적인 인물에 의해 창시되어, 일부는 단시기에 큰 사회적 세력으로 형성된 것이 있다. 막부말유신기(幕府末維新期)에는 교과신도의 형성이 눈에 띄고, 이것에 명치의 종교행정이 개재(介在)해서, 신도 13 파라는 체제가 만들어졌다. 20 세기에 들어가는 수많은 신도계신종교가 형성되게 되었다. 더욱이, 전후의 신사신도도 일종의 교단신도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다.

신도에 관계된 인물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186 명이다. 신도학파·유파의 창시자나 계승자, 신도교단의 창시자나 계승자, 그 외 저명한 신직(神職)\*, 신도학자 등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 외 신도이론에 영향을 미친 불자(仏者)나 유자(儒者)나 음양가(陰陽家), 또, 특히 신도와 관련이 깊었던 천황·황족, 쿠게(公家), 게다가 신기(神祇)행정에 관련된 인물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인물의 약력이 기술되어 있는데, 생애(生涯)의 중요한 사력(事歴)을 망라적으로 소개하는 형태가 아니라, 특히 신도와 관련이 깊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유파·학파의 관계자의 경우, 종종 다수의 저작(著作)이 있지만, 주요한 저작 내용에 대해서는 제 7 부의 서적(書籍)에 개별적으로 언급한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체로 간단한 기술에 그친다. 간행본인 저작집의 종류는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신도계신종교의 교조나 후계자의 경우는 교단의 항목에서 개략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인물의 항목에서는 할애한 경우가 많다. 인물에 관해서는 초상화, 사진의 수를 가능한한 많이 게재하려고 노력했다.

이노우에 노부타카(井上順孝)